

일본 국제협력은행, 아시아개발은행과 환경 분야 업무제휴 체결

일본 국제협력은행(JBIC)은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환경 분야에서의 업무제휴를 체결하고,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출자 및 용자 업무를 개시한다고 발표함. 한편, 아시아개발은행은 태양광, 풍력 발전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.

□ 일본 국제협력은행(JBIC),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업무 제휴 체결

- JBIC은 지난 5월 4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ADB 총회에 참석하여 구로다(黒田東彦) ADB 총재와 환경 분야에서의 업무제휴를 체결함.
 - JBIC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발전과 같은 환경관련 사업에서, ADB가 추진하는 안전에 대해 출자 및 용자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
 - 또한 JBIC은 ADB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
- 이에 앞서 JBIC은 지난 3월말 개도국에서의 환경관련 사업에 출자 및 용자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음.
 - 이로써 JBIC은 고성능 화력발전소와 송전설비, 태양광·풍력·지열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시설, 도시 교통망 정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됨.

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‘아시아·태양에너지·이니셔티브’를 발표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을 표명
 - 구로다 ADB 총재는 총회 개막식에서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, ADB는 태양광·풍력발전 등 ‘Clean Energy’분야에 2013년까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투자액을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힘.
 - 또한, 구로다 총재는 위와는 별도로 태양광발전을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강조하고, 향후 3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9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하는 ‘아시아·태양에너지·이니셔티브’를 발표함.
 - 칸나오토(菅直人) 일본 재무장관은 총회 연설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신 성장전략을 언급하면서, 신간선이나 에너지 등 일본의 기술을 아시아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고 역설

〈표 1〉 아시아·태양에너지·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12년까지 총 3,0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아시아 신흥국에서 추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비 총액은 90억 달러. ADB가 22억 달러를 제공하고, 민간사업체로부터 67억 5,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경을 초월한 자금공유 틀을 구축하고, 은행이나 민간 기업에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독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‘아시아·태양에너지 포럼’을 설치하여 기술을 각국에서 공유하는 방안 모색. 금년 7월 마닐라에서 첫 번째 회의 개최

자료: 日本經濟新聞, 2010.5.4일자.

〈참고자료〉

日本經濟新聞, 2010.5.4일/5일자.
 朝日新聞, 2010.5.4일/5일자.